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미 GDP, 올해 2, 3분기 감소한다”
- WSJ: 물가 상승세는 안정화됐다...상승률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 WSJ: 연준 고위 관리 2명, “인플레 싸움 진전 보여... 2%까지는 시간 걸려”
- Bloomberg: 서머스 전 재무장관, “연준 금리정책 고삐 풀면 70년대 위기 직면” 경고

[뉴저지 소식]

- BergenNews: NJ 코비드 사망/입원을 감소했으나 사례 보고 줄었다

[에너지]

- Bloomberg: 휘발유의 점진적인 수요 감소로, “짧게는 공급 문제, 길게는 기후문제 극복”
- WSJ: 캘리포니아 휘발유가 왜 이리 높을까?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Bloomberg: JP 모건 CEO, “원격 근무, 젊은 직원들에게 효과 없다”
- WSJ: 번아웃 직원들 관리 HR 매니저들 채용이 늘고 있다
- Bloomberg: 테크 기업들이 대규모 감원을 하는 이유
- Bloomberg: 구글, 1만2천명 해고...글로벌 인력 6% 감축

[보고서]

- Foreign Affairs: 북한의 새로운 위협... 미국은 핵개발 돈줄 차단해야

[미국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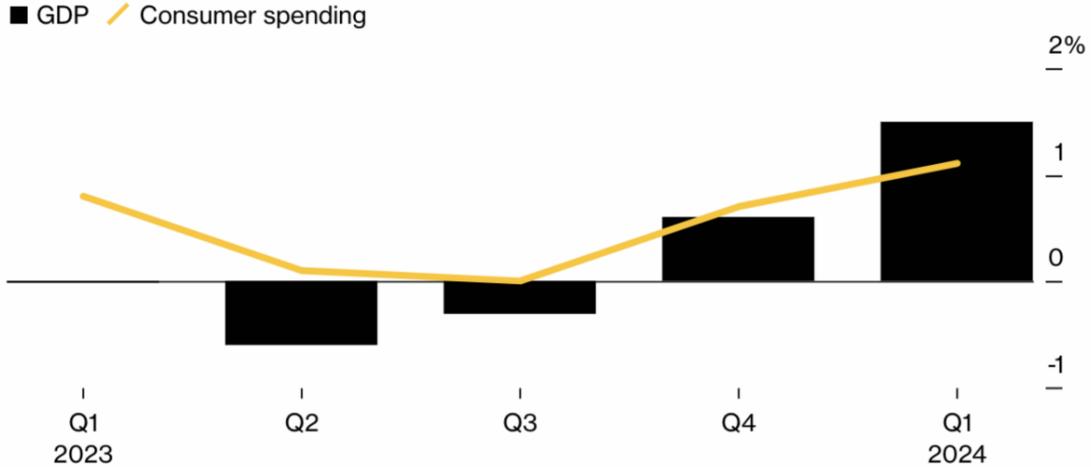
Bloomberg: US Economy Seen Shrinking in Next Two Quarters, Survey Shows

“미 GDP, 올해 2, 3분기 감소한다”

- 연준의 강한 금리 인상들이 경제 전반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침에 따라 올해 중반, 즉 2분기와 3분기에 미국 경제 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이코노미스트들은 전망했다. 이들은 1월 13일부터 18일까지 블룸버그가 설문 요청한 73명 이코노미스트다.
- GDP는 올해 2분기에 연율로 0.6%, 3분기에는 0.3% 위축되리라는 것. 이유는 1) 소비 지출 부진 2) 비즈니스 투자 약화 3) 산업생산 활동 약화 때문이라는 것.
- 이들은 내년 2024년 침체 가능성을 65%로 내다봤다.

Economy Seen Shrinking in Back-to-Back Quarters

Forecasters expect contraction to come as consumer spending stagnates



Source: Bloomberg
Note: Based on a survey of economists conducted Jan. 13-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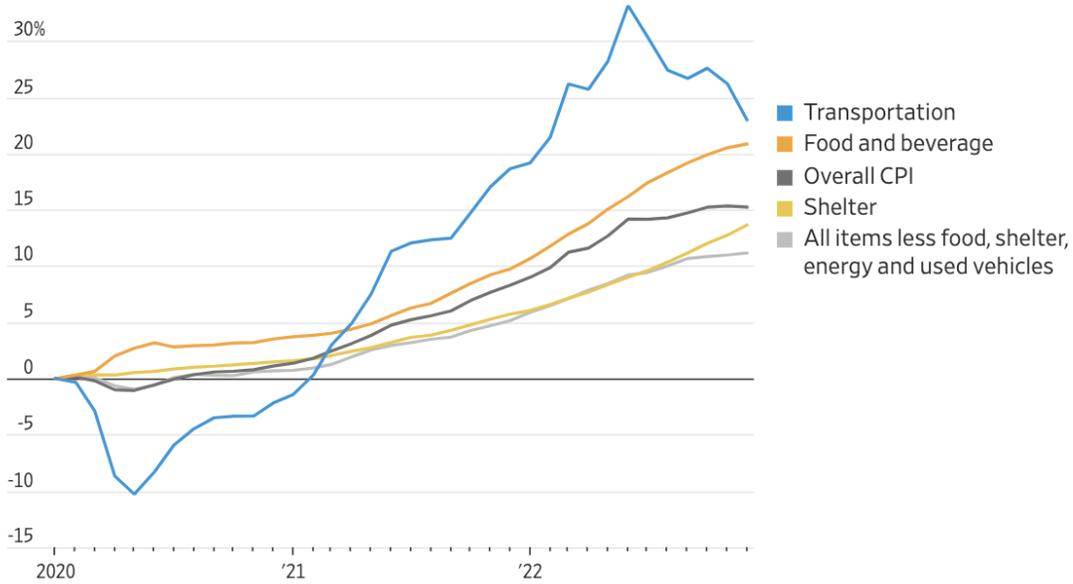
Bloomberg 기사

WSJ: Consumer Prices Plateau as Inflation Slows to Prepandemic Levels

물가 상승세는 안정화됐다... 상승률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 미국인들은 이제 월별 물가 상승 둔화세를 보고 있는데 언제 물가가 정상으로 되돌아갈까?
- 지난해 12월 연간 비교로 물가가 6.5%로 하락한 것은 연간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어 팬데믹 이전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 인플레이 수준이 정상화 된 것이 아니라 상승세가 안정화 됐다는 것. 지난 6개월간을 보면 물가 상승세가 1년동안 평균 1.9% 상승하여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연평균 상승률 1.7%에 근접하고 있다.

Change in prices since January 2020



Source: Labor Department

WSJ 기사

WSJ: Top Fed Officials See Progress on Inflation Fight

연준 고위 관리 2명, “인플레 싸움 진전 보여... 2%까지는 시간 걸려”

- 연준 부의장 Leal Brainard가 어제 목요일 “본인은 오늘 1월 31일부터 양일간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다른 동료들 처럼 금리 인상폭을 둔화시키는 이른바 전통적인 인상폭인 0.25% 인상률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 또한 같은 날 다른 모임에서 뉴욕연방은행 John Williams 총재는 연준의 금리 현상이 두가지 효과를 내고 있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두가지는 1) 성장 둔화 2) 소비자 및 기업체들의 인플레 기대를 억제시키는 효과다. 그는 2월 1일 회의의 금리 인상폭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투자자들은 연준의 0.25% 인상에 대한 컨센서스를 모으고 있다.

WSJ 기사

Bloomberg: Summers Warns of 1970s Crisis If Central Banks Relent on Rates

서머스 전 재무장관, “연준 금리 정책 고삐 풀면 70년대 위기 직면” 경고

- 전 연방재무부 장관인 Larry Summers는 “인플레이션을 통제하지 않으면 1970년대의 불황으로 되돌아가 모든 노동자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 이같은 답변은 전 IMF 선임 이코노미스트인 Olivier Blanchard가 경기 침체를 피하기 위한 연준의 물가 목표제를 현재 2%에서 (현실적인) 3%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코멘트에 답변한 것이다. 이들은 현재 스위스 다보스 World Economic Forum에 회의에 참석중이다.

Bloomberg 기사

[뉴저지 소식]

BergenNews: NJ COVID deaths, hospitalizations lower than last year, but cases likely going unreported

NJ 코비드 사망/입원을 감소했으나 사례 보고 줄었다(파악 힘들 수도)

- 크리스마스 이후 뉴저지에서 COVID로 인한 사망자는 200명 미만으로 작년에 보고된 2,300명 (주로 연초에) 보다 훨씬 적다. 전체 사례도 여전히 감소하고 있지만 증상이 경미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례가 보고되지 않는지 알기 어렵다.
- 한마디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힘들 수 있다는 것. 한편 추수감사절 이후 뉴저지에서 COVID 사례와 입원이 증가하고 있다. 보건 전문가들은 여행과 실내 모임이 급증할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BergenNews 기사

[에너지]

Bloomberg: Gasoline's Slow Fade Heralds US Supply Pain Now, Gain Later for Climate

휘발유의 점진적인 수요 감소로, “짧게는 공급 문제, 길게는 기후문제 극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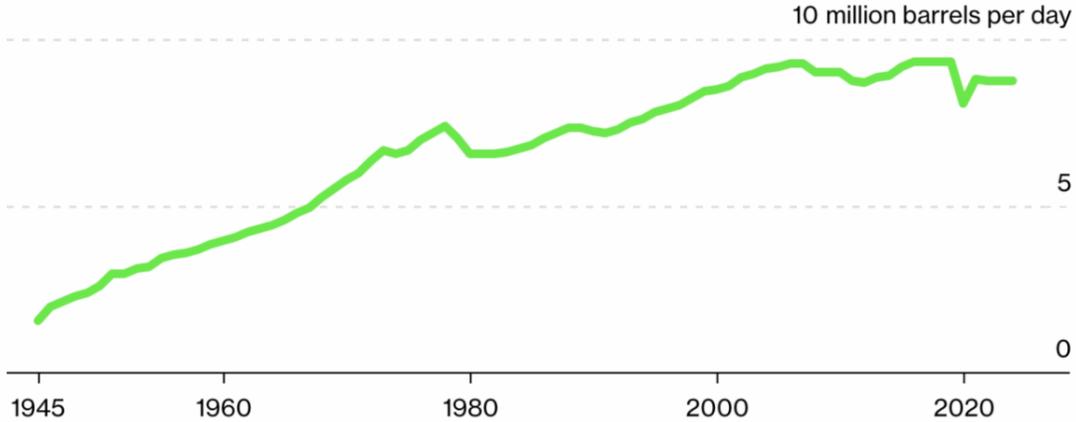
- 미국의 휘발유 수요가 정점을 찍고 지난해 마침내 둔화하면서, EV로의 전환과 함께 휘발유 수요가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 정부는 올해와 내년에 휘발유 수요가 더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연료 산업의 축소가 소비자 수요보다 더 빠르게 줄어들고 휘발유의 생산 차질, 가격 급등, 가동 중단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수요는 여전히 많지만 정유사의 입장에서 휘발유 공장은 점차 수요가 감소하는 비경제적인 고립 자산이 되어 생산을 더 늘릴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 휘발유는 소비자 물가지수의 약 4%를 차지하지만, 소비자들이 물가를 체감하게 하는 데에 영향이 크다. 그만큼 휘발유는 인플레이와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며, 향후 몇 년간의 단기적인 가격 급등이 정부에게 계속 골칫거리가 될 것이다.
- 한편 전문가들은 화석연료로 움직이는 자동차가 모두 EV 등으로 대체되기 위해서는 수십 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아직까지 EV는 미국 도

로를 달리는 모든 차량의 1% 미만을 차지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연료 가격을 조정하고, 탄소 배출을 줄여 기후환경적으로 좋은 소식이 될 것이다.

Downhill From Here for Gasoline

Structural changes mean US fuel use has peaked

US finished gasoline supplied



Source: EIA
Note: 2022-2024 data are forecasts

Bloomberg 기사

WSJ: California Has a Gas-Price Mystery: Too High, But Why?

캘리포니아 휘발유가 왜 이리 높을까?

-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주로 꼽히는 캘리포니아의 휘발유 가격은 2022년 12월 갤런당 4.32달러로, 다른 주 평균 3.09달러보다 1.23달러나 더 높다.
- 캘리포니아가 도입하고 있는 더 높은 휘발유세와 공기 청정 정책, 저탄소 연료 기준, 누출 방지 수수료, 고급 휘발유 의무화 등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80센트 정도의 차이를 만들어내는데, 남은 43센트의 차이는 여전히 미스테리다.
- 일단 캘리포니아는 주유소 당 운전자 수가 다른 주보다 두 배 더 많다. 주유소 간의 경쟁이 덜한 것이다. 그런데 주 정책이 휘발유로부터의 빠른 전환을 지향하기 때문에 새로운 주유소가 더 생기지 않고 있다.
- 또 캘리포니아 주유소의 마진은 2022년 갤런당 평균 79센트로, 전국 평균 44센트보다 79% 높았다. 캘리포니아는 독특하게도 상당수 주유소가 정유사에 소유되거나, 연료 가격에 대해 정유사들에게 통제권을 주는 장기 계약을 맺고 있다는 것이 원인이 될 수 있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Bloomberg: Dimon Says Remote Work ‘Doesn’t Work’ for Younger Staff, Management

JP 모건 CEO, “원격 근무, 젊은 직원들에게 효과 없다”

- JP 모건 CEO Jamie Dimon이 DAVOS에서 집에서 일하는 것이 젊은 직원이나 관리자들에게 “효과가 없다”고 말하며 원격근무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재택근무가 “자발성(spontaneity)”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 이는 업계 전반의 금융 침체와 경기 둔화 우려 가운데 나온 발언으로, 현재 대형 은행들이 직원들을 해고하는 이유로 RTO(Return to Office)를 사용하게 될 수 있어 업계 직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 그럼에도 주요 은행 CEO들은 일주일에 5일을 모두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 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현재 하이브리드 방식은 근로자에게 가장 인기 있는 접근 방식이며, 생산성과 여성의 돌봄 의무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다.

Bloomberg 기사

WSJ: One of the Hottest New Jobs Aims to Tackle Employee Burnout **번아웃 직원들 관리 HR 매니저들 채용이 늘고 있다**

- 팬데믹 기간에 번아웃된 직원들의 생산성을 높이고, 충성도도 높이고, 사직하지 않도록 돕는 ‘HR 매니저’를 고용하는 미국 기업들이 늘고 있다.
- 이런 직종은 수 년전에는 없었는데 최근에 LinkedIn 베스트 25개 직종중 5위로 새롭게 인기가 올라갔다.
- 이런 매니저들은 회사내에 director of well-being 또는 chief happiness officer로 불리기도 한다. 이들 매니저는 직원들의 매일 일과를 분석하고, 직원 대상 설문조사도 실시해 일의 만족도, 참여도 등을 조사하면서 직원들이 생산성과 충성도를 높이면서 회사에 계속 근무토록 돕는 직종이다.
- 한편 지난해 6월 갤럽이 미 근로자 1만5천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반 정도가 필요한 회사 업무만 하는 등 일의 참여도가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WSJ 기사

Bloomberg: Why Tech Companies Are Laying Off So Many People **테크 기업들이 대규모 감원을 하는 이유**

- 테크 기업들은 최근 몇 달 동안 수천 명의 직원들을 해고해왔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만명의 추가 감원을 발표했고, 아마존도 동참할 것이다.

Challenger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테크 산업의 감원 규모는 649% 늘어 총 9만 7천1백71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 테크 기업의 특성 상 지속적인 성장을 가정한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이 기업들이 안전하고 신중한 태도로 돌아선다면 투자자들을 사로잡기 어렵다는 것이다.
- 테크 업계의 감원 물결은 올해에도 이어져, 1월에는 아마존이 1만8천명 이상을 해고하고, Coinbase, Flexport, Salesforce 등 20여개의 기업이 10% 이상의 인력을 감축할 것으로 보인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Google to Cut 12,000 Jobs in 6% Reduction of Global Workforce

구글, 1만2천명 해고...글로벌 인력 6% 감축

-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이 이번주 금요일 전 세계 인력의 6%가 넘는 약 1만 2천명을 감원한다고 밝혔다. CFO는 4분기 신규 일자리가 전 분기보다 절반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구글은 탄탄한 검색 사업에 힘입어 흔들리는 세계 경제와 테크 기업 사이에서 꽤 오래 저항해왔다. 하지만 디지털 광고 둔화와 클라우드 컴퓨팅 부문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결국 감원 행렬에 동참하게 되었다.
- 구글은 감원을 통해 핵심 투자 분야인 AI로 자본과 인력을 집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한편 구글의 3분기 수익은 전년 대비 27% 감소한 1백39억 달러를 기록하며 실망감을 안겼다. 구글은 차세대 노트북인 Pixelbook,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인 Stadia 사업을 중단하는 등 비용 절감의 움직임을 보여 왔다.

Bloomberg 기사

[보고서]

Foreign Affairs: The New North Korean Threat

북한의 새로운 위협... 미국은 핵개발 돈줄 차단 등 해야

- 저자 Sue Mi Terry는 워싱턴 DC의 윌슨센터 아시아 프로그램 디렉터(전 CIA 북한 분석가)로서 KOCHAM 세미나 연사로 초청되기도 했다.
- 북한의 최근 핵개발 실험은 매우 위험한 상황인데 미국 등 서구 국가들은 러시아 전쟁 때문에 관심이 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작년에 1백차례 가까이 미사일 실험을 했다.

-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차원에서 1) 태평양을 넘는 대륙간 미사일 발사 실험 2) 발사 속도가 빠르고 선제 대응이 힘든 고체연료 로켓 개발 3) 위치가 서로 다른 장소를 타격할 수 있는 다발사체 로켓 개발이 그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자신들이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조건을 낮추었다. 쉽게 말해 지도부가 위협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 혹자는 말한다. 지속적인 핵개발이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그러나 북한의 개속 핵개발을 발전시키고 있는데 핵무기 사용으로 분명하게 위협하는 전세계 유일한 국가다.
- 미국은 군사적 차원에서 한·미협력, 미·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한·미·일 군사협력도. 북한은 지난 2년간 핵개발 자금으로 가상화폐와 경화 10억불을 훔쳤는데, 미국은 불법적인 돈줄을 차단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태가 악화되어 불안정하고 전략적인 균형이 북한에 유리하지 않도록 서둘러야 한다.
- 물론 미·한·일 군사협력에 따른 한국과 일본 국내 정치적 반대 상황도 극복해야 하고, 북한 사태에 대한 워싱턴 DC의 관심을 더욱 유도해야 한다.

Foreign Affairs 기사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